

별소년

최지혜 글 · 레지나 그림



주제	소리를 시각적 이미지와 입체작품으로 표현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별, 별자리, 소리, 모빌만들기, 감각놀이, 추상화표현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4-01]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과학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미술 [6미01-01]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6미02-04] 조형 원리(비례, 율동, 강조, 반복, 통일, 균형, 대비, 대칭, 점중·점이, 조화, 변화, 동세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성	대구다사초등학교 성윤미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어릴 때의 사고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쌍식이를 또래의 아이들은 '병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고요로 둘러싸인 쌍식이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맑고 따뜻하다. 푸른 별에 감싸인 모습으로 표현된 쌍식이는 그런 깊숙한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온몸이 빛나는 푸른 소년이 들판을 달리는 모습은 그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투영이기도 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뒷동산에서 염소 떼와 한나절을 보내던 쌍식이는 소년이 되어가며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오는 미현이에게 마음이 쏠려간다. 세상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쌍식이지만 사랑일지도 모를 심장의 쿵쿵거림은 아주 선명하게 듣고 느낀다. 그런 쌍식이에게 찾아온 미현이는 기쁨이자 슬픔이다. 만나면 한없이 기쁘고 만나지 못하면 또 한없이 슬픈 그런 존재... 미현이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 너무 깊고 커지자 쌍식이는 저 하늘에서 늘 미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별이 되어간다.

■ 학습 목표

- 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들을 수 있다.
-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여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 별자리의 의미를 알고 우리 가족 별자리 만들기를 할 수 있다.
- 자신을 상징하는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 공간 꾸미기를 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의사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림책 속 친구는 사고로 인해 소리를 듣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소리들을 다른 감각을 이용해 수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각적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활동과 소리를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환하여 감각의 전환을 경험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수업은 감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과학 수업에서 별과 별자리에 대한 학습과 이어지게 우리 가족의 특징을 살린 가족 별자리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의 별을 가지고 태어나며 별뿔별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별을 품은 쌍식이가 하늘의 별이 되었듯 자신을 추상적인 도형으로도 표현해 보고, 감정의 상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활동도 해보고자 한다. 자신을 상징하는 도형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모빌로 만들어 교실 공간 꾸미기 활동으로 이어간다면 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간 장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소리 파일, 색연필, 싸인펜, 색종이, 도화지, 가위, 풀, 허니컴페이퍼, 실 등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경험 나누기 및 예상하기 - 경험 나누기 - 표지 살펴보기 - 예상하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살펴보기 - 이야기 살펴보기 - 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그림 살펴보기 - 그림 집중하여 살펴보기	
읽은 후	손가락으로 말 전하기 놀이 - 등에 글자 써서 단어 전달하기	1차시
	주변의 소리 알아맞히기 및 수집하기 - 소리 알아맞히기 - 소리 수집하기로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1차시
읽은 후	이미지로 나 표현하기 - 여러 마음의 상태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 나를 이루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 나와 우리 가족 별자리 그리기	2차시
	입체로 공간 꾸미기 - 나를 상징하는 입체물 만들기 - 공간 꾸미기	1차시

읽기 전

1. 경험 나누기 및 예상하기

■ 경험 나누기

- '별'하면 떠오르는 것은?

예: 태양 / 돌아가신 할머니 / 별똥별 / 혜성 / 은하수 / 캠핑 갔을 때 본 별들 / 연예인 / 스타

- 밤하늘의 별을 본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별자리 이름을 짓는 등 별은 왜 특별할까요?

예: 가족 캠핑가서 밤에 별을 봤는데, 정말 별이 많았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빈 적이 있어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빈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이뤘겠죠.

우리 은하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라 특별할 것 같아요.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구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별이 특별하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도 특별하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현산 천문대에 가서 별보기 체험해 본 적 있었어요.

■ 표지 살펴보기

- 소년 안에 별을 그려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소년이라는 주인공이 특별한 아이라서요.

소년의 몸 속의 별의 수만큼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서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소년이어서요.

표지 색이 흐리기도 해서 웬지 소년이 죽어 사막에 별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별 아이가 아닌 별 소년이라고 하고 키가 커서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 같아요.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쌍식이의 유일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예: 복길이에요 / 강아지요 / 쌍식이 태어날 때 들어와서 나이가 같대요.

- 쌍식은 왜 이름이 쌍식이일까요?

예: 쌍둥이라서 쌍식이라고 했네요. 태어나면서 동생은 죽었대요. 쌍식이 엄마 마음이 아팠겠어요.

쌍둥이 중에 이름에 '쌍'자를 붙이는 사람은 못봤는데, 옛날 어른들 중에는 쌍둥이라고 쌍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쌍'자가 조금 거북하게 들리기도 해요.

- 쌍식은 어쩌다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나요?

예: 네 살 때 소 발에 치여 하늘로 붕 뜰다가 땅에 떨어진 이후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쌍식이는 소 곁에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 쌍식이는 미현이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요?

예: 쌍식이 곁에 와서 웃어주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쌍식이에겐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해주니 쌍식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쌍식이 집에 놀러와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옆집 사촌 아이인데도 옆집에 놀러가서 말걸어 주는 미현가 착한 아이 같아요.

- 대나무 숲에서 쌍식이는 온몸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일까요?

예: 대나무 숲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대나무 잎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처럼 온몸이 흔들렸어요.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쌍식이가 대나무 향을 맡고 그 향이 온몸으로 퍼져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 대나무 숲에서 쌍식이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꼈을까요?

예: 흥분할 것 같아요. 대나무 숲에서는 귀가 안들리는 것을 신경 안써도 되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자신을 느꼈을 것 같아요.

- ‘바람이 댓잎에 부셔지는 소리를 쌍식이는 얼굴로 듣습니다.’, ‘쌍식이는 소리를 눈으로 듣습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숲이 들려주는 속삭임을 마음으로 담습니다.’라는 느낌은 어떤가요?

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쌍식이가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확 트이며, 바람이 불어와 댓잎이 흔들리고 자신의 몸에 부딪혀 지나갈 때 몸이 느끼는 그 감각을 몸으로 듣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웬지 눈을 감고 바람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을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유롭고 그 순간 평온한 느낌일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에 손을 가져다 대면 손에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손바닥을 마구 비볐다가 떼어서 약간의 공간을 만들고 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손바닥의 느낌일 것 같아요.

몸에 아지랑이가 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인데, 눈으로 보이듯 웬지 쌍식이는 소리를 모양으로, 눈으로,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듯 느껴져요.

쌍식이 몸 안 가득한 별처럼 대나무 숲에서 쌍식이는 별처럼 빛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바람에만 집중하며 느끼는 것 같아요.

- 기다려도 오지 않는 미현이를 기다리는 쌍식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힘 빠지고 쓸쓸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매일 담벼락만 바라보며 미현이를 기다리다 지치고 힘 빠질 것 같아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이면 오겠지 내일이면 오겠지 하고 애가 타는 마음 같아요.

- ‘쌍식이가 별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 감기에 걸렸다가 아파서 죽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별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 왔고 그 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 그림 살펴보기

- 파스텔톤의 은은한 색감이 주는 느낌은 어떤가요?

예: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연필형 색연필로 그린 것 같아요. 파스텔로 그린 것 같아요. 조용하며 고요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쌍식이의 마음 같아요. 편안한 느낌이에요.

대나무 숲에 선 쌍식이의 몸에 별이 가득 차 있고, 초록빛 대나무가 있는 장면에서 시원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미현이를 만났을 때의 기분을 색으로 무지개라고 표현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 그림책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의 작은 도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형은 어떤 의미로 그렸을까요?

예: 여자아이들이 담 너머에서 있을 때는 노란색과 분홍색이 웅기웅기 모여있듯 동그라미 도형으로 여자아이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쌍식이에겐 나쁜 말을 하는 장면에서 여자아이들은 네모 모양이 한데 모여 만든 동심원으로 표현했고, 상처

받은 쌍식이는 세모로 표현한 것 같아요.

쌍식이는 소리를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나쁜 감정은 네모로 표현한 것 같아요.

- 등장인물(쌍식이와 미현이)의 표정을 그리지 않고 사람의 몸 형태로만 그린 이유는 뭘까요?

- 쌍식이의 몸 안에 별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미현이는 스케치로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예: 쌍식이는 소리를 듣거나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와 마음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 같아요.

쌍식이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별을 몸에 품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미현이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것 같아 텅 비어 있는 하얀 실루엣으로만 그린 것 같아요.

쌍식이가 미현이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별로 가득차게 표현한 것 같아요.

쌍식이의 순수하고 빛나는 마음을 별로 표현한 것 같아요.

- 그림책을 다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드나요?

-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예: 사고로 다쳐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미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쌍식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쌍식이가 끝내 미현이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나라에 별이 된 쌍식이에게 마음이 머물러요.

미현이와 만나 놓고 있을 때 무지개 빛이 펼쳐지고 동그라미가 많이 생기는 그 장면과 쌍식이가 몸에 별이 가득 찬 그림이 마음에 듭니다.

그림책을 보고 있으니 파스텔과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커다란 동그라미는 앤지 만다라 같아서 만다라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읽은 후

1. 손가락으로 말 전하기 놀이

■ <손가락으로 말 전하기> 놀이 방법

- ① 4인 1모듬이 된다.
- ② 모듬원들은 한 줄로 선다.
- ③ 맨 처음 선 친구만 선생님을 바라보고, 나머지 친구들은 뒤돌아선다.
- ④ 맨 처음 친구는 선생님 보여주는 카드의 단어를 보고, 뒤돌아 두 번째 선 친구의 등에 그 단어를 쓴다.
- ⑤ 계속해서 전달해서 마지막 선 친구가 자신이 알아차린 단어를 미니 화이트보드에 적는다.
- ⑥ 정답을 적은 모듬은 점수를 획득한다.

Tip.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답을 맞힌 팀은 모두 점수를 얻는다. 팀 구성원의 순서는 놀이를 다시 시작할 때 무조건 바꾼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짐을 인식하고 누구의 탓이 아닌 모두의 책임임을 알게 한다. 4인 1모듬에서 8인 1모듬으로 인원을 늘려가며 놀이한다. 단어 수준에서 영화 제목, 노래 제목,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용어, 속담 전하기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주변의 소리 알아맞히기 및 수집하기

■ 소리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봅시다. (소리에 집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장소 알아맞히기 ASMR¹⁾>



- 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 ② 눈을 감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 ③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차렸으면 손을 들고, 끝까지 들으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 맞힙니다.

Tip. 처음에는 놀이로 접근하다가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명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식을 넘어서, 아이들이 소리를 수집해 문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해도 좋다.

3. 이미지로 나 표현하기

■ 여러 마음의 상태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 여러 가지 느낌말을 제시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 A4 용지를 4등분하여 선생님이 제시하는 감정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그런 감정이 일어난 상황을 떠올리며 추상적인 도형이나 이미지로 표현해본다.

예: 사랑스러운 표현은 하트 모양이 떠올라 하트 모양을 분홍색 계열로 표현해보았어요.

신난다는 표현은 초록계열의 색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여기저기 방향을 달리하며 표현했어요.

화가 난 기분은 붉은색 계열로 색칠해 화가 폭발할 것 같이 표현했어요.

행복한 감정은 몽글몽글 동글동글 따뜻한 색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표현했어요.

슬픈 감정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듯 비가 내리는 것처럼 파란색 계열로 빗물처럼 표현했어요.

사랑스럽다	신난다	화난다	행복하다	슬프다

■ 나를 이루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 쌍식이의 몸에 별이 가득 찬 것처럼, 자신의 몸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은지 색이나 추상적인 도형으로 표현해 봅시다.

예: 나의 머리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듯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의 심장은 따뜻하게 하트 모양입니다.

나의 마음과 몸은 전체적으로 평온한 분홍색입니다.

나의 다리는 초록색으로 건강합니다. 갈색으로 나무 기둥처럼 튼튼함을 표현하고도 싶었습니다.



■ 나와 우리 가족 별자리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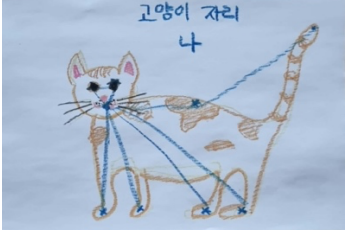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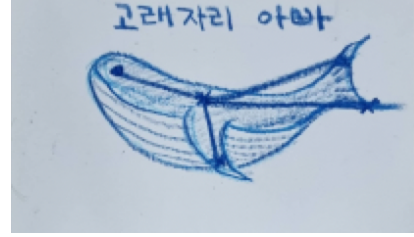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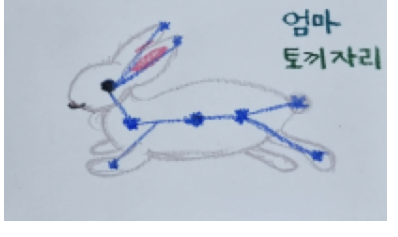
- 우리 가족을 별자리로 표현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 우리 가족의 성향을 생각하며 가족 별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¹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을 의미하며,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따위의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말이다. 출처: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

예: 나는 고양이자리입니다. 고양이처럼 귀엽고 애교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는 큰 고래처럼 든든합니다. 그래서 고래자리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토끼처럼 보송보송하며 따뜻하고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토끼자리입니다.

		
나 - 고양이자리	아빠 - 고래자리	엄마 - 토끼자리

4. 입체로 공간 꾸미기

■ 나를 상징하는 입체물 만들기

- 나를 상징하는 도형을 하나 정해보고 그 도형에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적습니다.
- 실을 달아 모빌처럼 만듭니다.

■ <나를 나타내는 모빌 만들기>

- ① 나를 상징하는 도형을 하나 그린다. 단, 도형은 대칭도형이어야 한다.
- ②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대칭도형의 반을 그리고 오린다.
- ③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색종이에 적는다. (이름, 좋아하는 음식, 색깔, 놀이, 친한 친구, 가족 등)
- ④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도형을 겹쳐 붙인다.
- ⑤ 모두 겹쳐 붙이고 난 뒤 가운데 실을 넣어 붙인다.

			
여러 색의 색종이	반으로 접기	대칭도형의 반 그리기	가위로 겹쳐 오리기
			
자신에 대한 정보 적기	가운데 실 넣어 붙이기	별 모양 모빌	하트 모양 모빌

■ 공간 꾸미기

- 모빌로 만들어진 각자의 상징물을 공중에 매달아 장식합니다.
- 학생들이 만든 모빌을 교실 천장에 붙이거나 막대에 묶어 교실을 장식한다.